

---

제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7년9월4일(단기4290년) 상오10시20분

---

개회식순

1. 폐회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

○간사장 신용석; 지금부터 제14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0시 20분 폐회)

먼저 국민의례에 의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14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 생활에 1년 최종의 임시회의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의장 부의장 기타 상임분과위원장 만기로 인해서 오늘 개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이 회의는 특별한 의안이 없이 이것을 주요목적으로해서 모인만큼 우리가 과거 1년을 생각할때에 각자 자기 반성도 있을것이요 또한 개인 비판도 있을 것이 사

실일 것입니다.

의회는 우리가 처녀의회를 운영해나온 이 경험을 가지고 언제까지든지 처녀경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로부터는 우리가 반듯이 여러가지 자기역량 또는 개인의 힘으로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에 47인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마음을 더욱 더 굳건히 해서 일로부터는 새로 선임될 선출될 의장 또는 각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초에 우리 시의원으로서 나온 목적을 관철해 주시도록 여러 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로서 개회에 의해서 식사말씀으로 여쭙는 바이올시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 고재봉; 오늘 제14회임시회의를 개최함에 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년 9월 5일에 시의회가 역사적인 발거름을 내딛디어 어언 한돌마지를 2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의가 깊다고 보는 바입니다. 시의회 구성을 보게된 이래 시행정은 점진적으로 자치적인 방향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어서 감개 새로운 바가 있습니다.

그간 자치생활 1년생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와는 대체적으로는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 긴밀한 연락 협조가 있었든 것이나 때로는 상호 견해차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마는 이러한 대립과 협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보와 발전을 가져왔든 것임으로서 앞으로도 기탄없는 고견을 피력하시와 복지행정의 실효를 건우워 지도록 가일층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한 의회 정부위원장 선거를 비롯하여 각분과위원장이 새로히 선출되어서

새로운 조직과 새 기분을 가지고 오는 1년간의 의회운영이 시작될 것인바 지나간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하여 시민생활의 향상이나 자치행정의 발전에 많은 전진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재 아직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안건도 제출되어 있어오니 예기하는 성과를 내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을 부의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선창으로 일동 만세삼창)

이로서 제14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오 1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0시 25분 폐회)